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elf-Esteem, Self-Control,
Scholastic Performance, and Sexual Permissive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개발팀

연구원 유지선**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유계숙***

Dept. of Education Development, 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Support Centers

Research Fellow : Yoo, Ji-Seon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

Assistant Professor : Yoo, Gye-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in relation to education,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effects of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in relation to their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self-control, scholastic performance, and sexual permissive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345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male: 166, female: 179) of two middle schools in Seoul, Korea. Scale for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was formula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dolescents were found to be more future-oriented in the areas of work and career and in the area of marriage and family than in the area of education. Several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to examine the contribu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uture orientation to predictions of adolescent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und that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self-esteem, self-control, and scholastic performance, while having no significant influence on sexual permissiveness.

▲주요어(Key Words) : 미래지향(future orient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통제력(self-control), 학업성적(scholastic performance), 허용성(sexual permissiveness)

* 본 논문은 유지선의 석사학위 논문임.

** 주 저 자 : 유지선 (E-mail : eduyjs@paran.com)

*** 교신저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khu.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미래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발달과업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시기로서, 향후 자신의 진로나 인생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현재 행동과 태도는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그에 따른 목표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부적응이나 중퇴, 알코올 및 약물중독, 조기 성관계 및 임신 등의 문제행동을 쉽게 경험할 것이다. Greene (1986 재인용)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특히 청소년 시기에 미래지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는 미래지향이 급속도로 발달, 차별화, 확장되는 시기로서, 미래계획이 점차 구체적이고 미래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며, 둘째, 청소년기는 인생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전환점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미래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인 적응 보호요인이다(Seginer et al.,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성취감과 자신감이 높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며, 목적의식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위의 정보나 자원들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Rosenberg, 1965). 호주와 핀란드의 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미래사건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Seginer, 2003).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즉각적인 쾌락이 위험성을 가지거나 미래의 목표와 상치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만족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통제력에 따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Lewis와 동료들(2005)이 성인의 미래지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히로인 중독자가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성인보다 자신의 미래 행동 결과에 대해 관심이 낮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의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위험위기에 쉽게 노출되기 시작하는 청소년시기에 미래지향이 자기통제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uinton 등(1993)은 청소년시기에 자신의 미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10대 성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미래의 배우자 선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긍정적인 미래지향을 가진 청소년은 성경험이 적고, 소수의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가지며,

효과적인 피임법과 함께 AIDS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피임방법을 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Yowell(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긍정적인 미래지향을 지닐수록 성관계시 콘돔사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혼전임신에 대한 위험성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지향은 성 허용성을 억제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과제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미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중의 하나로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청소년들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을 것이다(Yowell, 2000).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성취동기(김완옥, 2004; 문선아, 2000; 유계식·이재창, 1997; 이운경·도현심, 2005), 삶의 의미(김완수, 2005; 정미란, 2004), 인생목적(양은정, 2002)과 진로관련 결정, 준비, 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청년의 결혼관, 부부관, 부모관, 자녀관 등 가족가치관(강숙경·고정자, 1996; 조미숙·오선주, 1999)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와 학업, 결혼 및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특정 영역만을 연구하였으며,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기가 끝나고 청년기로 진입한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을 측정하기보다 그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측정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기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등 3가지 발달과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풍토 속에서 학업성적과 대학 진학에만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계획보다 학업, 직업 및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에 보다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이며, 성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업, 직업과 진로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나 결혼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286명과 재판을 받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495명 등 2,7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4.7%가 이혼에 대해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8명은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결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체제의 위기감에 대해선 "못느낀다"(81%)거나 "보통"(11.8%)이라는 응답이 "느낀다"(7.2%)는 응답을 압도했다(국민

일보, 2004).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가족구성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이러한 응답은 우리 사회의 결혼 및 가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 및 성 경험이 증가하고, 그 결과 10대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소년의 학업이나 진로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미래지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결혼 및 가족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청소년의 미래지향

미래지향(future orientation)의 정의는 계획, 열망, 기대, 가까운 혹은 먼 미래의 일어날 사건에 관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표현이었다(Seginer, 1988). 한편 Robbins와 Bryan(2004)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Seginer와 Moyman(2005)은 자기구조화된 의식적인 미래의 이미지로서 현재의 동기와 행동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미래지향이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개인의 관점과 기대로서 현재의 선택과 계획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이다.

미래지향의 영역은 크게 사적(개인적) 미래지향 영역과 공적(사회적) 미래지향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적 미래지향 영역은 성격과 자아실현,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등을 포함하는 반면, 공적 미래지향 영역은 모든 문화에서 직면한 주된 환경적인 문제(핵 위협, 자원고갈, 인구폭발, 토지부족, 식량부족 등), 전반적인 세계의 미래(불확실성, 안정성, 진화 등), 중요한 사회적 특성과 제도의 미래(과학과 기술, 발달, 평화, 정치, 정의와 자유, 의사소통, 태도와 가치, 교육 등)를 포함한다(Poole & Cooney, 1987). Seginer(1988)의 연구에서는 사적 미래지향 영역과 공적 미래지향 영역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 군복무, 고등교육,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자녀 포함), 자신(일반적 희망과 두려움, 여가, 질병과 사망, 기타), 타인(부모, 친구, 낭만과 성), 공동체 이슈(전쟁과 평화) 등 8가지로 미래지향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미래

지향의 영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Azaiza & Ben-Ari, 1997; Malmberg & Trempala, 1997; McCabe & Barnett, 2000a, 2000b; Poole & Cooney, 1987; Seginer, 1988, 1992; Seginer & Schlesinger, 1998; Yowell, 2000)을 종합해볼 때,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미래지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3가지 영역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과 기대가 많고, 미래 수행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의 세 영역에서 청소년의 미래지향을 살펴보았다.

2.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미래지향과 관련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을 살펴 보았다.

1)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한상숙·김경미, 2006). 윤지은과 최미경(2004)은 자아존중감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강한 인성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Rosenberg(1979, 재인용)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신의 능력,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성을 평가,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자신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 자체보다는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그의 동기수준이 달라지므로, 청소년의 성취 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홍성훈·도현심, 2002).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자아존중감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호주와 핀란드의 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미래지향의 여러 영역 중 학업, 직업 및 진로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사건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Seginer, 2003) Malmberg와 Trempala(199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진학 등 학업영역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Eccles et al., 1984; Wigfield, 1994 재인용).

2) 미래지향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 비행 행할 순간,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들의 유혹을 이겨내거나 하는 선택의 능력이 자기통제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하창순, 2004). 임은실(2002)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충동적이지 않게 행동할 수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지연을 위해 인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의 가능성은 더 높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적 행위로서 흡연, 음주, 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하창순, 2004). Arnelkev 등(1993)에 의하면, 낮은 자기통제는 범죄와 공격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결혼, 학교, 직장에 실패를 가져오며 흡연, 음주, 마약, 도박, 혼외출산, 불륜 등 무분별한 행동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은 학교부적응, 학업, 외적 사회통제성에도 영향을 미치며(Polakowski, 1994), 10대 비행과 성인기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기광도, 2001).

Robbins와 Bryan(2004)이 연구한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자기통제력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은 더 많은 위험행동에 관여하지만,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은 위험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낮은 자기통제력 특성 중의 하나인 충동성이 높았으며, 긍정적인 미래지향 태도를 가질수록 알코올 중독, 마약 복용 등 위험수준이 높은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3) 미래지향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을 살펴본 Wyn 등(1998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미래지향적일수록 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Leondari 등(1998 재인용)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이 더 좋은 학업성적을 얻는다고 하였다. Azaiza와 Ben-Ari(1997)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영역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미래지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반대로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진학에 더 강한 목표를 가지고 미래 목표 성취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미래지향의 수준이 보다 높을 것이다(Mirza & Somers, 2004).

4) 미래지향이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

윤경자(2002)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달단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적응하는 데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청소년기의 규범적인 발달과제를 벗어난 성행동은 정상적 발달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기 이후의 성적, 정서적,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과 같은 성관련 문제행동의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근 연구일수록 성관계 경험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김운정·이창식, 2005).

그리고 데이트 관계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는 22%의 연구대상자가 성적폭력을 경험하였다. 김용미와 김현옥(2001)은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을 연구한 결과, 성적폭력의 7가지 유형에 있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8%이며, 성교강요 2%에서 신체일부 밀착 14%에 이르는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자(200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 68.8%, 남학생 31.2%가 데이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관여하였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피임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며, 임신과 성병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성 허용성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Mirza와 Somers(2004) 연구에서는 미래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임신 및 출산이 미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현실주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Robbin과 Bryan(2004)은 높은 미래지향을 보일수록 성관계시 알코올 사용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이 높으며, 성 허용성이 낮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인구사회적 특징이 동일하다면,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중산층 지역에 소재한 남자 중학교 1개교와 여자중학교 1개교 2학년을 선정하여 각각 5개 반씩 표집하였다. 2006년 10월 한 달간 남학생 170명, 여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기재를 한 자료는 제외한 남학생 166명, 여학생 179명, 총 345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김옥희, 2004; 연문희, 1985)에 따라서 중학교 2학년이 본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1년간 경험하고, 고교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에 비하여 미래의 진로 준비를 보다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만 13.90세(표준편차 .48, 범위 13-15세)였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149명(43.2%), 둘째 이상 73명(21.2%), 막내 92명(26.7%), 외동 30명(8.7%)이었고 종교는 무교 및 기타 139명(40.3%), 기독교 125명(36.2%), 불교 56명(16.2%), 천주교 18명(5.2%)이었다. 학업성적은 하하 11명(3.2%), 하중 30명(8.7%), 하상 25명(7.2%), 중하 58명(16.8%), 중중 72명(20.9%), 중상 52명(15.1%), 상하 25명(7.2%), 상중

47명(13.6%), 상상 13명(3.8%)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징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만 44.28세(표준편차 4.08, 범위 34~65세)이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만 41.28세(표준편차 3.81, 범위 31~60세)이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100명(29.0%), 판매직 89명(25.8%), 생산직·서비스직 64명(18.6%), 기술직·관리직 48명(13.9%), 단순노무직 21명(6.1%), 무직·실직 8명(2.3%), 전문직 5명(1.4%) 순이었으며 전업주부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97명(28.1%), 판매직 84명(24.3%), 생산직·서비스직 63명(18.3%), 무직·실직 41명(11.9%), 사무직 33명(9.6%), 기술직·관리직 12명(3.5%), 단순노무직 7명(2.0%), 전문직 2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이 각각 29명(8.4%), 213명(61.7%), 77명(22.3%), 11명(3.2%)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각각 34명(9.9%), 221명(64.1%), 64명(18.6%), 9명(2.6%)이었다. 결혼지위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초혼 282명(81.7%), 이혼 35명(10.1%), 별거 8명(2.3%), 재혼 8명(2.3%), 사별 1명(0.3%) 순이며, 어머니는 초혼 278명(80.6%), 이혼 32명(9.3%), 재혼 11명(3.2%), 별거 10명(2.9%), 사별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 8.51점(표준편차 2.81, 범위 3~15점), 어머니 9.74점(표준편차 2.84, 범위 3~15점)이었고,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의 격려·지지 정도는 아버지 10.07점(표준편차 2.84, 범위 3~15점),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45

인구사회적 특징			
성별 빈도(%)	남		166(48.1)
	여		179(51.9)
만 연령 (세)	평균(표준편차)		13.90(.48)
출생순위 빈도(%)	첫째		149(43.2)
	둘째이상		73(21.2)
	막내		92(26.7)
	외동		30(8.7)
종교 빈도(%)	기독교		125(36.2)
	불교		56(16.2)
	천주교		18(5.2)
	무교 및 기타		139(40.3)
학업성적 빈도(%)	상	상	13(3.8)
		중	47(13.6)
		하	25(7.2)
	중	상	52(15.1)
		중	72(20.9)
		하	58(16.8)
하	상	25(7.2)	
	중	30(8.7)	
	하	11(3.2)	

<표 1> 계속

부모의 만 연령 (세)	아버지	44.28(4.08)		
	어머니	41.28(3.81)		
부모의 직업 빈도 (%)	아버지	무직·실직	8(2.3)	
		단순노무직	21(6.1)	
		생산직·서비스직	64(18.6)	
		판매직	89(25.8)	
		사무직	100(29.0)	
		기술직·관리직	48(13.9)	
		전문직	5(1.4)	
	어머니	무직·실직	41(11.9)	
		단순노무직	7(2.0)	
		생산직·서비스직	63(18.3)	
		판매직	84(24.3)	
		사무직	33(9.6)	
		기술직·관리직	12(3.5)	
		전문직	2(.9)	
부모의 교육수준 빈도(%)	아버지	중졸 이하	29(8.4)	
		고졸	213(61.7)	
		대졸	77(22.3)	
		대학원 이상	11(3.2)	
	어머니	중졸 이하	34(9.9)	
		고졸	221(64.1)	
		대졸	64(18.6)	
		대학원 이상	9(2.6)	
	부모의 결혼지위 빈도(%)	아버지	초혼	282(81.7)
			사별	1(.3)
			별거	8(2.3)
			이혼	35(10.1)
			재혼	8(2.3)
		어머니	초혼	278(80.6)
사별			3(.9)	
별거			10(2.9)	
이혼			32(9.3)	
재혼			11(3.2)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총점)		아버지	8.51(2.81)	
		어머니	9.74(2.84)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의 격려·지지 정도(총점)		아버지	10.07(2.84)	
		어머니	10.56(2.78)	
응답자와 부모와의 친밀한 정도(5점 척도)	아버지	3.71(1.15)		
	어머니	4.23(.96)		
부모님의 부부관계(5점 척도)	평균(표준편차)	3.79(1.04)		
사회경제적 지위 빈도(%)	상	상	27(7.8)	
		중	53(15.4)	
		하	36(10.4)	
	중	상	56(16.2)	
		중	92(26.7)	
		하	32(9.3)	
	하	상	17(4.9)	
		중	7(2.0)	
		하	4(1.2)	
	가정의 월평균 소득(만원)	평균(표준편차)	331.77(199.69)	

어머니 10.56 점(표준편차 2.78, 범위 3~15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와 응답자의 부모님과 답자의 부모님의 부부관계는 3.79점(표준편차 1.04, 범위 1~5점)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하 4명(1.2%), 하중 7명(2.0%), 하상 17명(4.9%), 중하 32명(9.3%), 중중 92명(26.7%), 중상 56명(16.2%), 상하 36명(10.4%), 상중 53명(15.4%), 상상 27명(7.8%)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31.77만원(표준편차 199.69 범위 50~1,700만원)으로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미래지향

청소년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Azaiza & Ben-ari, 1997; Eccels & Barber, 2000 재인용; Malberg & Trempala, 1997; McCabe & Barnett, 2000b; Mirza & Somers, 2004; Peters, Tortolero et al., 2005; Seginer & Schlesinger, 1998)의 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학업 영역 10문항, 직업과 진로 영역 10문항, 결혼과 가족 영역 10문항 등 총 30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다. 미래지향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긍정적이고 구체적임을 의미하며, 총 30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4$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50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ottfredson &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한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청소년의 현재 학업성적

청소년의 현재 학업성적을 9등급으로 분류하여 자기보고 형태로 질문하였다.

5) 청소년의 성 허용성

청소년의 성 허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Gardne 등(2004)이 사용한 'Wait to have Sex'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성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척도 총 6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6)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청소년이 평소 자신의 부모와 미래 삶에 대해 얼마나 의사소통하는지 지각 정도에 따라, 미래지향에 유의한 결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MaCabe et al., 2000b)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척도를 구성하였다. 부, 모 따로 분리하여 각 영역별 1문항씩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로 1점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5점 '매우 자주 한다'이며, 점수 범위는 부, 모 각각 3~1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 미래 삶에 대한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가 Cronbach's $\alpha = .74$, 또는 C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났다.

7)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부모의 격려·지지 정도

부모의 격려·지지 정도가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aCabe et al., 2000b)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척도를 구성하였다. 부, 모 따로 분리하여 각 영역별 1문항씩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로 1점 '전혀 지지하지 않음'에서 5점 '전적으로 지지함'이며 점수 범위는 부, 모 각각 3~1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미래 삶에 대해 격려·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부가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또는 Cronbach's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응답자와 부모와의 친밀한 정도는 5점 리커트로 1점 '전혀 친밀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친밀하다'이며 점수 범위는 1~5점이다. 부모님의 부부관계도 5점 리커트로 1점 '매우 나쁘다'에서 5점 '매우 좋다'로 점수 범위는 1~5점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Program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청소년의 전반적인 미래지향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인구사회적 특징간,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미래 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적 특징을 통제 변인, 청소년의 미래지향을 독립변인으로,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미래지향의 전반적 경향

청소년의 미래지향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미래지향(M=108.49, SD=13.66)은 보통수준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직업 과 진로(M=37.20, SD=5.64), 결혼과 가족(M=36.69, SD=7.32), 학업(M=34.60, SD=5.13)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 영역에서 고등학교 졸업(M=4.72, SD=.66), 대학진학(M= 4.34, SD=.86), 학업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래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함(M=4.16, SD=.84)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진학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업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내가 임신을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M=2.76, SD=1.30)과 대학진 학(M=2.68, SD=1.29)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경험하기 어 려운 임신이 학업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표 2> 청소년의 전반적인 미래지향

N=345

문 항 내 용	평균(표준편차)
1. 학업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4.16(.84)
2.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4.34(.86)
3. 나는 미래에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할 것이다.	3.87(.96)
4. 나는 대학에 입학하면,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	3.27(.95)
5. 내가 임신을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은 어려울 것이다.	2.76(1.30)
6. 나는 미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	2.93(.99)
7. 나는 미래 학업을 위한 계획이 있다.	3.24(1.22)
8.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4.72(.66)
9. 나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	2.94(1.02)
10. 내가 임신을 한다면, 대학진학은 어려울 것이다.	2.68(1.29)
학업영역 총점(범위 10~50)	34.60(5.13)
11. 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4.04(1.02)
12. 나는 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다.	3.18(1.21)
13.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다.	3.99(1.01)
*14.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실직을 경험할 것이다.	3.42(1.09)
*15.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직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3.32(1.11)
16. 나는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계획이 있다.	3.42(1.13)
17. 나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4.14(.92)
18. 나는 미래에 직장생활을 즐길 것이다.	3.85(1.12)
*19. 나는 미래에 취업하지 못할 것이다.	4.12(.93)
*20.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3.90(.97)
직업과 진로영역 총점(범위 10~50)	37.20(5.64)
21. 나는 미래 나의 남편(아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3.27(1.33)
22. 나는 미래 나의 가족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3.47(1.31)
23. 나는 미래의 결혼과 가족을 위한 계획이 있다.	2.81(1.32)
24. 나는 미래 나의 결혼과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	2.55(1.11)
25. 나는 미래에 결혼할 것이다.	4.11(1.17)
26. 나는 미래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다.	4.17(1.05)
27. 나의 미래 결혼생활은 내 부모님의 결혼생활보다 행복할 것이다.	3.99(1.04)
28. 나의 미래 남편(아내)은(는) 행복할 것이다.	4.10(.98)
29. 나는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4.35(.87)
*30. 나는 미래에 이혼할 수 있다.	4.10(1.02)
결혼과 가족영역 총점(범위 10~50)	36.69(7.32)
미래지향 총점	108.49(13.66)

주: * 표시한 문항은 역산문항임

<표 3>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인구사회적 특징간의 관계

N=345

성별	인구사회적 특징										결혼 및 가족 관련 교육 참여정도	
	사회 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결혼지위	어머니의 결혼지위	아버지의 대화	어머니의 대화	아버지의 격려 지지	어머니의 격려 지지	진로 관련 참여정도		
청소년의 미래지향	.08	.16***	.11	.06	-.08	-.07	.27***	.37***	.29**	.33***	.16**	.07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행하는 것(문항 6)이 보통 수준을 못 미치며 미래 학업을 위한 계획(문항 7)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미래 학업 계획은 있으나 그에 따르는 실천이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직업과 진로 영역에서는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문항 13, 17, 18)과, 부정적인 예상(문항 14, 15, 19, 20) 모두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로 청년실업을 상승과 높은 조기퇴직률의 보편화 현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그리고 직업과 진로 영역에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보는 노력(문항 12)은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즉 직업과 진로 영역에서도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과 가족 영역에서는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문항 25, 26, 27, 28, 29)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상을 하였다. 또한 이혼의 가능성(문항 30)에 대해서도 보통수준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지만, 우리나라의 고 이혼율 현상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4)

또한 결혼과 가족 영역에서도 미래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자주 생각(문항 21, 22)하지만, 미래의 결혼과 가족을 위한 노력

(문항 23, 24)은 보통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미래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미래지향과 인구사회적 특징간의 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청소년의 미래 지향과 인구사회적 특징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인구사회적 특징 중 사회경제적 지위($r=.16, p<.001$),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r=.27, p<.001$)와 어머니($r=.37, p<.001$)와의 대화 정도, 청소년의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r=.29, p<.01$)와 어머니($r=.33, p<.001$)의 격려·지지 정도, 청소년의 진로관련 교육 참여횟수($r=.16, p<.01$)와 각각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간의 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력($r=.47, p<.001$), 학업성적($r=.33, p<.001$), 성 허용성($r=.15, p<.01$)과 각각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은 학업성적($r=.26, p<.001$), 성 허용성($r=.16, p<.01$)과 각각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업성적도 성 허용성($r=.01, p<.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학업성적은 높고 성 허용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적 특징과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2006년 10월 8.0%로 2005년 10월 기준 같은 달 보다 0.8% 포인트 높아져 1999년 8.6% 이후 최대를 기록함(통계청 2006 10월 고용동향).
- 이직사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천 명당 2005년 3월 건강·고령 등 334건, 일거리가 없어서·사업경영 악화 179건, 명예·조기퇴직 70건,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70건, 정리해고 46건, 직장의 휴·폐업 45건으로 나타남(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월보).
-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00년 2.5건,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 2004년 2.9건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선진국 수준임(통계청,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표 4>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간의 관계

N=345

변인	1	2	3	4
1. 자아존중감				
2. 자기통제력	.47***			
3. 학업성적	.33***	.26***		
4. 성 허용성	.15**	.16**	.01*	

*p<.05, **p<.01, ***p<.001

주 : 성 허용성은 총점이 높을수록 성에 대해 비허용적임을 의미함.

<표 5>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45

변인	Model 1			Model 2		
	B	SE B	β	B	SE B	β
성 별 ^a	.036	.860	.003	-.738	.772	-.056
사회경제적 지위	.463	.242	.119	.378	.216	.097
아버지의 교육수준 ^b	-.897	.759	-.082	-.859	-.079	-1.271
어머니의 교육수준 ^b	.467	.787	.041	1.588	.701	.033
아버지의 결혼지위 ^c	.314	4.126	.016	-.172	-.009	-.047
어머니의 결혼지위 ^c	.939	3.991	.048	1.588	3.555	.082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와의 대화	.403	.212	.157	.219	.190	.085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와의 대화	.235	.222	.093	-.007	.200	-.003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의 격려·지지	.058	.224	.023	.024	.199	.010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의 격려·지지	.365	.213	.127	.222	.222	.085
진로 관련 교육 참여 정도	.212	.223	.109	.052	.189	0.016
결혼 및 가족 관련 교육 참여 정도	-.221	.253	.109	-.164	.156	-.061
미래지향				.255	.031	.477***
R ²		.133			.315	
F for change in R ²		3.359***			69.373***	

***p<.001

주 : a성별 : 1 = 남, 2 = 여.

b교육수준 : 1 = 중졸이하, 2 = 고졸, 3 = 대졸, 4 = 대학원 이상.

c결혼지위 : 1 = 초혼, 2 = 기타(사별, 별거, 이혼, 재혼).

석을 실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을 회귀식에 먼저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이들 변인은 자아존중감 변량의 13.3%를 설명하였다($F(12, 262) = 3.36, p < .001$).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을 통제한 후 미래지향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18.2% 향상되었다. 미래지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text{-change}(1, 261) = 69.37, p < .001$). 즉 인구사회적 특징이 동일한 경우, 청소년의 미래지향($\beta = .48$)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변량의 31.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적 특징과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기통제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하게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은 자기통제력 변량의 11.1%를 설명하였다($F(12, 262) = 2.72, p < .01$). 이들 통제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와의 대화($\beta = .18$), 성별($\beta = .15$)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아버지와 미래지향에 대해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기통제력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45

변인	Model 1			Model 2		
	B	SE B	β	B	SE B	β
성별 ^a	-2.873	1.158	-.154*	-3.391	1.142	-.181*
사회경제적 지위	.312	.326	.066	.290	.320	.056
아버지의 교육수준 ^b	-.861	1.023	-.059	-.837	1.001	-.058
어머니의 교육수준 ^b	-.126	1.059	-.008	-.182	1.037	-.012
아버지의 결혼지위 ^c	8.097	5.556	.305	7.791	5.439	.294
어머니의 결혼지위 ^c	-6.615	5.374	-.257	-6.208	5.261	-.241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와의 대화	.599	.285	.175*	.483	.281	.141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와의 대화	-.061	.299	-.018	-.214	.296	-.064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의 격려·지지	-.117	.301	-.035	-.138	.295	-.041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의 격려·지지	.647	.334	.186	.557	.328	.160
진로관련 교육 참여 정도	.312	.285	.074	.212	.280	.050
결혼 및 가족관련 교육 참여 정도	-.342	.236	-.096	-.306	.231	-.086
미래지향				.160	.045	.226***
R ²		.111			.151	
F for change in R ²		2.719**			12.512***	

*p<.05, **p<.01, ***p<.001

주 : a성별: 1 = 남, 2 = 여.

b교육수준: 1 = 중졸이하, 2 = 고졸, 3 = 대졸, 4 = 대학원 이상.

c결혼지위: 1 = 초혼, 2 = 기타(사별, 별거, 이혼, 재혼).

<표 7> 현재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45

변인	Model 1			Model 2		
	B	SE B	β	B	SE B	β
성별 ^a	.234	.248	.057	.081	.239	.020
사회경제적 지위	.066	.070	.058	.052	.067	.046
아버지의 교육수준 ^b	.563	.226	.175*	.574	.216	.179**
어머니의 교육수준 ^b	.124	.227	.038	.106	.217	.033
아버지의 결혼지위 ^c	-2.192	1.178	-.380	-2.281	1.127	-.395*
어머니의 결혼지위 ^c	1.878	1.138	.335	2.000	1.088	.357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와의 대화	.044	.061	.059	.009	.059	.012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와의 대화	-.024	.064	-.032	-.067	.062	-.091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의 격려·지지	.050	.064	.069	.045	.061	.062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의 격려·지지	.135	.071	.179	.108	.068	.143
진로 관련교육 참여 정도	.128	.061	.140*	.098	.058	.107
결혼 및 가족 관련 교육 참여 정도	-.027	.051	-.034	-.016	.049	-.021
미래지향				.047	.009	.306***
R ²		.161			.236	
F for change in R ²		4.088***			24.981***	

*p<.05, **p<.01, ***p<.001

주 : a성별: 1 = 남, 2 = 여.

b교육수준: 1 = 중졸이하, 2 = 고졸, 3 = 대졸, 4 = 대학원 이상.

c결혼지위: 1 = 초혼, 2 = 기타(사별, 별거, 이혼, 재혼).

<표 8> 성 허용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45

변인	Model 1			Model 2		
	B	SE B	β	B	SE B	β
성 별 ^a	.613	.550	.071	.472	.552	.055
사회경제적 지위	.098	.155	.041	.083	.154	.035
아버지의 교육수준 ^b	-1.424	.487	-.213**	-1.420	.484	-.213**
어머니의 교육수준 ^b	.722	.506	.139	.712	.503	.102
아버지의 결혼지위 ^c	-1.092	2.639	-.089	-1.177	2.625	-.096
어머니의 결혼지위 ^c	1.655	2.552	.139	1.765	2.539	.148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와와의 대화	.081	.135	.052	.050	.136	.032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와의 대화	.077	.142	.050	.037	.143	.024
미래지향에 관한 아버지의 격려·지지	-.094	.143	-.061	-.100	.142	-.065
미래지향에 관한 어머니의 격려·지지	.165	.159	.103	.141	.158	.088
진로관련 교육 참여 정도	.206	.135	.106	.179	.135	.092
결혼 및 가족관련 교육 참여 정도	-.008	.112	-.005	.002	.112	.001
미래지향				.043	.022	.131
R ²		.062			.076	
F for change in R ²		1.440			3.844	

**p<.01

주 : a성별: 1 = 남, 2 = 여.

b교육수준: 1 = 중졸이하, 2 = 고졸, 3 = 대졸, 4 = 대학원 이상.

c결혼지위: 1 = 초혼, 2 = 기타(사별, 별거, 이혼, 재혼).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을 통제한 후, 미래지향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4% 향상되었고, 미래지향은 자기통제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 261)=12.51, p <.001). 즉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β =.81),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일수록(β =.23) 자자기통제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현재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적 특징과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현재 학업성적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하게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다.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은 학업성적 변량의 16.1%를 설명하였다(F (12, 262)=4.09, p <.001). 이들 통제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버지의 교육수준(β =.18), 진로 관련 교육 참여 정도(β =.14)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진로 관련 교육에 많이 참여한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이 좋음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을 통제한 후, 미래지향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7.5% 향상되었고, 미래지향은 학업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 261)=24.98, p <.001). 즉 아버지의 결혼지위가 초혼(β =.40)

이고, 아버지의 교육수준(β =.18)이 높으며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일수록(β =.31) 현재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을 통제한 후, 미래지향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7.5% 향상되었고, 미래지향은 학업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1, 261)=24.98, p <.001). 즉 아버지의 결혼지위가 초혼(β =-.40)이고, 아버지의 교육수준(β =.18)이 높으며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일수록(β =.31) 현재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적 특징과 미래지향이 성 허용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β =-.21)이 청소년 자녀의 성허용성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허용성 변량의 6.2%를 설명하는데 그쳤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징 변인들을 통제한 후 미래지향을 투입한 결과, 성 허용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미미하게 1.4%가 향상되는 것에 그쳤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beta=-.21$)만이 청소년 자녀 성 허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성 허용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34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미래지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예상한 바와 같이 학업 영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업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성 허용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서구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대 임신 경험율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관계나 임신이 학업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래의 학업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학업 계획은 있으나, 그에 따르는 실천이 미흡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직업과 진로 영역에서는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과 부정적인 예상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양가적인 미래지향을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지향을 갖고 있지만, IMF 이후 청년실업률 상승과 높은 조기 퇴직율의 보편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부정적인 미래상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노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미래지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위한 청소년들의 구체적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결혼과 가족 영역에서는 미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예상하지만,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고 이혼율 현상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은 실천되지 못하는 막연한 상태로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실제적 결혼 및 가족생활 준비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삶(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진로지도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된다. 대부분 학업성적과 적성 및 흥미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측면의 진로개발 욕구를 탐색하는 작업이 미흡하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직업과 진로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기 당 1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지연, 2003). 이윤옥(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받을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투입시간에 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32.1%), '기타'(22.6%), '진로지도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15.7%), '진로지도 담당자의 자질 및 준비가 부족해서'(8.8%)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지도는 개인상담의 형태로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상담회수는 2회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 진로지도의 초점이 대학입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진로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으며,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탐색이나 연구 없이 진로를 선택할 우려가 있다(이지연, 2003).

한편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대용(2003)과 정금희 등(2000)에 따르면, 성교육이 범 교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어렵고, 성교육 시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 높은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 가족생활교육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실시되고 있으며, 문제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가족·가족생활 영역을 분석한 현지혜(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생활 교육 분야의 구성 비율은 평균 37.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랑과 친밀감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가족생활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다른 시기의 교육보다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정현숙, 2004).

따라서 학교,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학업, 직업과 진로, 미래의 결혼과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기호에 적합한 다양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확대·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3가지 영역(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을 따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뿐 3가지 영역을 통합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이 미래 성공적인 성인이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을 연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행연구(Nurmi et al., 1995; Seginer, 2003)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미래 성인이 발달과업의 가치와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추며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미래지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미래지향은 자기통제력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미래지향을 가질수록 학교 부적응, 중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위험한 성적 행동, 10대 임신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덜 관여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은 자기통제력이 약한 청소년 혹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저지 및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미래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Alexander et al., 1994; Dweck, 1991; Gamoran, 1987; MacLeod, 1987; Mickelson, 1987 재인용)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세운 미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달성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학업성적이라는 수단을 이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지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 등 학업성취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실천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들은 서울시 중산층 지역에 소재하는 남자 중학교 1곳과 여자중학교 1곳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미래지향을 측정하는 도구는 국외의 측정도구를 기초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Quinton et al., 1993 재인용)와 달리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성 허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참고한 Gardner 등(2004)의 'Wait to have Sex' 척도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한국 청소년의 성 허용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명

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보고 형태로 학업성적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향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미래의 학업, 미래의 직업과 진로, 미래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관점과 기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미래 성인이 발달과업을 위한 진로 및 결혼과 가족 관련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래지향을 측정하는 보다 다양한 도구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의 연령,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 미래지향의 보다 다양한 변인들로 확장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07년 02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6월 07일

【참 고 문 헌】

- 강숙경·고정자(1996).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5.
- 기광도(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정학회**, **16**, 7-27.
- 김대용(2003).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의 문제. **교육철학**, **30**, 27-45.
- 김옥희(2004). 청소년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효과분석; 청소년의 상담프로그램 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제 1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9-221.
- 김용미·김현옥(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 김운정·이창식(2005). 부모의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1), 250-268.
- 김완수(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옥(2004).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정·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 변인들 - 피해자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87-202.
- 남현미·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문선아(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정(2002).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자아정체감 및 인생 목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1985).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상담방법 연구. **교육발전논총**, 7(1), 171-193.
- 유계식·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 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259-288.
- 윤경자(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 윤지은·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37-251.
- 이운경·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운옥(2004). 고등학생의 진로준비 및 진로지도 실태.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20(2), 59-81.
- 이지연(2003). 한국 진로교육 전반에 관한 OECD 견해. **한국진로 교육학회지**, 16(1), 101-122.
- 이창식·김윤정(2003).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1), 277-296.
- 임은실(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그 일치도가 아동의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금희·양순옥·백성희(2002).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 자료의 활용 실태와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8(3), 313-321.
- 정미란(200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2004). 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사회과학연구**, 18, 1-13.
- 조미숙·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67-89.
- 하창순(2004).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 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상숙·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현지혜(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정생활교육 분야 내용 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홍성훈·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 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Arnelkev, Grasmick, Tittle, & Jr(1993). Low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3), 225-247.
- Gardner, Giese, & Parrott(2004). Evaluation of the connection s: Relationships and marriage curriculum. *Family Relations*, 53(5), 521-527.
- Gjesme(1981). Is there any future in achievement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5(2), 115-138.
- Malmberg & Trempala(1997). Anticipated transition to adulthood: The effect of educational track, gender and self-evaluation on Finnish and Polish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5), 517-537.
- McCabe & Barnett(2000a). First comes work, then comes marriage: Future orientation among African American young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9(1), 63-70.
- McCabe & Barnett(2000b). The relation between familial factors and the future orientation of urban, African American sixth gra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4), 491-508.
- Mirza & Somers(2004). Future orientation among Caucasian and Arab-American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5(3), 361-72.
- Polakowski(1994). Linking self 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s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1), 41-76.
- Poole & Cooney(1987). Orientations to the future: A comparison of adolescents in Australia and Singapo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2), 129-150.
- Robbins & Bryan(2004).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orientation, impulsive sensation seeking, and risk behavior among adjudicate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428-445.
- Seginer(1988). Adolescent's orientation to ward the future: Sex role differentiation in a sociocultural context. *Sex Role*, 18(11/12), 739-757.
- _____(1992). Future orientation: age-related differences among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scence, 21(4), 421-436.

Seginer & Schlesinger(1998).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in time and place: The case of the Israeli Kibbutz.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1), 151-167.

Seginer, Vermulst & Shoyer(2004). The indirect link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A multiple-step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4), 365-378.

Seginer & Moyman(2005). Future orientation, identity and intimacy: Their relations n emerging adulthood.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2-37.

Trommsdorff, Lamm & Schmidt(1979).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Time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2), 131-147.

Yowell(2000). Possible selves and future orientation: Exploring hopes and fears of Latino boys and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3), 245-280.